

겨레의 마음속에 빛나는 불멸의 글밭

력사의 땅 판문점에
위대한 아버지의 숭고한 통일
애국의 뜻을 전하는 친필비
가 서있다.

《김일성
1994. 7. 7.》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
기까지 조국통일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역사적문건에 남기신
마지막친필!

이 글밭에는 1994년 7월
7일의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
들여있다.

산새들도 아직 잠에서 깨
지 않은 어둠새벽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집무실창가로
는 불빛이 호르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책상우에 놓
인 부피두툼한 문건을 번지
시며 깊은 사색에 잠겨계셨
다. 그 문건은 반세기를 가
까이하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갈장내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될 남북최고위
급회담과 관련한 내용이 담
겨져있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민족의
속원인 조국통일의 전환적국
면이 열릴 전야에 무거운 책
입감을 안으시고 어떻게 하
면 북한학교위급회담을 성과
적으로 치르도록 할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며 문건
을 한페이지한페이지 번지
시며 읽으셨다. 이윽고 그이
께서는 문건의 마지막페이지
를 넘기셨다. 그러시고는 펜을
드시어 미구에 도래할 중대사
변의 시각을 예감하시는듯 겨
레의 마음을 담은 무게로 그
문건을 힘주어 쓰시었다.

비록 아홉 글자밖에 안되
지만 그 글밭에는 조국통일
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아버지의 한생
의 업적이 깃들여있다.

외세에 의해 나라가 갈라
진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
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었으며 조
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
게 인도하시어 조국통일운동
을 전민적운동으로 강화발
전시키신 아버지수령님이시
었다.

해방직후 내외분열주의세력
들에 의해 남조선에서 《단
선단정》이 조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역사적인 남북조선 정
당, 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
를 소집하시어 사대매국세력
의 민족분열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리
신분도 수령님이시고 우리
나라에서 하나의 조선이나

《두개 조선》이나 하는 두
로선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날
카롭게 벌어졌던 시기에 분열
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
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
한 투쟁으로 한 겨레를 불리
일으키신분도 수령님이시며
격폐상태에 있던 북과 남사이
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고
북남사이에 공평성명과 합의
의 서들을 채택하게 하여 조국
통일운동의 새 국면을 열어놓
으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그이께서는 백두산에서 싸
울 때도 잠을 재대로 자지 못
했지만 지금은 나라를 통일
시키지 못해서 못자고있다고,
나도 통일이 된 다음에는 밀
렸던 잠을 한번 꼭 자보려고
한다고 그토록 교신하시며 오
로지 겨레의 속원인 조국의
통일을 위해 하실수 있는 모

든것을 다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
통일의 근본원칙과 방향을
밝힌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어 나라의 통일위업
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
적지침을 마련해주셨다.

조국통일3대헌칙과 전민적
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
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용으
로 하는 조국통일3대헌장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
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수 있게 되었다.

아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
유훈을 관철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그 실현
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
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는 분열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으시려는 일념에서 판문
점에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아버이수령님의 통일친필을 새
긴 비를 세우도록 해주셨다.

주체85(1996)년 11월 24일
판문점을 시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통일친필비앞에
오래도록 서계시면서 일군들
에게 우리는 수령님의 념내대
로 조국을 반드시 통일하여
야 한다고, 아버지수령님께
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었는데 나는 조국을 통일
하고 통일된 조국을 우리 인민
들에게 반드시 선물로 주려고
한다고 결연히 언급하시었다.

이렇듯 아버지수령님의 조국
통일유훈을 필생의 사명으로
받아안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두차

레의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
이 마련될수 있었고 우리 민
족기리를 리념으로 하는 격
동과 환희의 6.15통일시대가
펼쳐질수 있었다.

조국통일과 민족의 무궁
번영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업과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
고있다.

사상도 령도도 덕망도
아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판문점을 찾
으신 그날 한평생 나라의 통일
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회억하시
면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
원을 기어이 실현하실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으셨다.

그 의지는 그대로 이 땅우
에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낳게 하
였으며 조국통일의 새로운 장
을 펼쳐놓게 하였다.

오늘 우리 겨레의 조국
통일위업은 안팎의 분열주
의자들의 전쟁대결책동으로
하여 엄중한 도전을 받고있
지만 겨레는 신심과 용기를
잃지 않고 통일진군을 다
그쳐가고있다. 그것은 민족의
존엄이고 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때
문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아버이수령님께서 남기신 불
멸의 글밭을 가슴깊이 간직
하고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조국
통일의 새날을 반드시 안아
오고야말것이다.

리문혁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주체80(1991)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을 방문한 세계평화연합 총
재 문선명선생을 만나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총재선생과 이렇게 만나 낮
을 익히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숙해지
게 된것자체가 조국통일을 위하여 좋은 일이라
고 하시었다.

문선명총재는 위대한 수령님께 조국통일을 위하
여 모든것을 다하겠다고 말씀올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의 진정어린 말을 들으
시고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우리가 1972년에
남측과 함께 발표한 7.4공동성명의 3대원칙 즉
자유,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의하여 해
결되어야 한다고, 특히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는 민족이 조국통일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사상
과 리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하는것이 중요하
다고 교신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두사람이 단결하면 그 힘이
한사람의 힘보다 더 클것이며 이렇게 전체 조선
민족이 단결하면 통일은 반드시 실현된다고 강조
하시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하루

주체83(1994)년 7월 7일이였다.

조국통일문건을 검토하시고 역사적인 친필을
남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밤에는 또 밤대로
휴식도 없이 사업을 계속하시느라 때늦은 식사마
지 들지 못하시었다.

한 일군이 그이를 우려하며 식사를 좀 드실것을
간절히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
서는 어쩔지 밥상각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제 일을
더 하느라 밥상각이 나겠지라고 하시고는 계속
정력적으로 사업을하시었다.

일군이 다시금 감정을 울렸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고맙다고 하시면서 김정일동지
가 인민을 위하여 밤새워 일하는것 보면 잠도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밤은 깊어만 가는데 80고령의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은 여전히 계속되고있었다. 문건을 보시고 전
화를 하시고 또 문건을 보시고...

한평생 조국통일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그토
록 마음쓰신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의 마
지막하루는 이렇게 흘러갔다.

본사기자

민족의 단결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사향가》에 어려오는 크나큰 애국의 세계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겨레의 가
슴마다에, 이 나라의 산에
도 들에도 깔리며 차고넘치
는 7월.

아버이수령님의 해빛같은
그 미소를 그리며 매년 사람
들의 귀전에 울려오는 한편
의 노래가 있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신편 말씀 아귀에 쟁쟁해
...

유순한 선물에 조선민족의
정서를 담은 《사향가》.
아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그
토록 사랑하시며 즐겨 부르
시던 노래.

이 노래는 아버지수령님께서
항일의 나날에 친히 창작
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이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나날 《사향가》는 정
말 잊을수 없는 노래라고,
우리는 산에서 그 노래를 부
르며 조국에 대한 사랑을 더
욱 뜨겁게 간직했고 그 노래
에서 힘을 얻어 일제놈들
을 용감히 쳐부셨다고 교신
하시었다.

나서자란 고향과 사랑하는
는 조국선전에 대한 사무치

는 그리움과 빼앗긴 조국을
기어이 찾으려는 의지가
런마다 흘러넘치는 《사향가》.
아버이수령님께서 이 노
래를 가슴깊이 새기시고
항일무장투쟁의 기나긴 세월
장백산 출기출기, 암굴강
굴이굴이마다 불멸의 자욱
을 새기시며 강도 일제를 무
찌르시었다.

잊지 못할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등불가에서 그
려보신것은 단순한 고향 만
경대만이 아니였다. 아름다
운 만경대와 더불어 안겨오
는 삼천리조국강산이었고 일
제에게 짓밟혀 신음하는 겨
레의 모습이었다. 달밝은 밀
영의 밤 유격대원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가슴속에 더욱 굳
게 자리잡은것은 울밀의 봉
선화처럼 시들어가는 겨레에
게 기어이 재생의 봄을 안겨
줄 불타는 의지였다.

대동강을 아름다운 만경대
의 불
꿈결에도 잊을수 없네 그리운
산천
광복의 그날 아 돌아가리라

은 겨레가 기쁨과 환희에
넘쳐 목청껏 만세를 불렀던
해방의 아침은 이처럼 조국

사랑, 겨레사랑을 불태워주
는 《사향가》의 노래선물과
더불어 뛰어왔다.

어찌 항일대전의 나날에만
울렸으랴.

해방된 새 조국강산에서
도, 제국주의침략세력의 무
력침공으로부터 조국의 자유
와 독립, 인민의 귀중한 생
명재산을 지켜내기 위한 가
렬치절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에,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
의건설의 나날에도 높이 울
렸던 《사향가》였다.

전화의 나날 공화국영웅,
모범전투원들을 최고사령부
로 부르신 아버지수령님께
서는 이 영광의 자리에서 노
래를 불러주셨으면 하는 그
들의 간청에 항일의 나날
에 즐겨 부르시던 《사향가》
를 부르시었다.

그 노래는 피로써 찾은 내
나라, 귀중한 우리 인민을
목숨바쳐 지켜내야 한다는
각오와 멸적의 의지를 더욱
굳세게 해주며 조국의 산발물
과 천리전선에도 끝없이 메
리쳤으며 용사들을 조국수호
성전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
는 힘과 용기로 되었다.

오늘도 아버지수령님께 대
한 못건디는 그리움을 더해
주며 인민의 마음속에서 울
리고 또 울리는 《사향가》.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깊은
회억에 잠기시어 《사향가》
를 부르시던 그날의 우리
수령님의 모습이 어려오나.

우리 수령님 즐겨 부르
시던 노래.

이 노래를 부르시며
아버이수령님 회억하시었으
리라.

조국과 인민, 겨레를 위해
바쳐오신 자신의 한생애.

은 겨레와 세인이 칭송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애국의 한생
애는 민족의 단결과 조국통일
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고 통일의 길에 크나
큰 업적을 쌓으신 애국애족의
불멸한 투쟁사도 력력히 새겨
져있다. 통일이 되면 10년은
더 짧어질것같다고 하시며 언
제나 조국통일을 생각하시고
민족분열의 고통을 당하는
겨레에게 기어이 조국통일을
선물로 안겨주시려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커다
란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수령님이시었다.

정령 날이 가고 해가 바
뀌
수록 민족의 아버지의 위대한
애국애족의 세계는 《사향가》
의 선물과 함께 겨레의 가슴
을 뜨겁게 해주며 조국청사에
길이 전하여지고있다.

본사기자 유금주



7월의 대지에 곱이치는 그리움의 대하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온 나라의 방방곡
곡에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
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
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
한 절절한 그리움의 대하가
차남쳤다.

지리리 천대받고 억눌렸던
인민들 땅의 주인, 공장의 주
인,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
주시고 이 땅우에 자주, 자
립, 자위로 빛나는 주체의 사
회주의조선을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

그이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나라의 부강번
영과 인민의 행복, 민족의 통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동상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귀하신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를 찾아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었다.

각계층 군중들이 절세위인
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
고 만수대언덕에 올랐다.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
이를 들고 위대한 수령님들
의 동상을 찾은 군중들은
이 땅에 인민대중중심의 사
회주의를 일떠세우고 빛내

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
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우러러 삼
가 인사를 드리었다.

만수대동상을 찾은 비전향
장기수 김동기선생은 《우리
인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
세워주신 그 은정, 저희들을
조국통일전사로 내세워주신
그 믿음의 더없이 소중한
기에 우리들은 적구에서도
자기의 지조를 지켜 끝까지
싸울수 있는것입니다.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습을
뵈옵고나니 또다시 새 힘이 샘
솟는것만 같습니다. 내 남은
여생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들
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
는 길에 아낌없이 바쳐가겠
습니다.》라고 마음속맹세를
퍼력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
앙위원회 서기국 부장 김유성
은 《만수대언덕에 오르니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해 마
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께 대
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
슴벅차오름을 금할수 없습
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는 나라가 분열된 첫시기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나날
까지 우리 인민들에게 통일
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하

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
치시였습니다. 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통일애국
의 뜻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높이 받들고 이 땅우에 기어
이 통일된 조국을 일떠세우
기 위해 자신의 적은 힘이나
마 바쳐가겠습니다.》라고 말
하였다.

만수대동상을 찾아 위대한
수령님께 숭고한 경의를 드
리며 결의를 다지는 사람들
의 성령과 나이는 각이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결같
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대
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이 땅우
에 기어이 통일되고 번영하
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
려는 불같은 열의가 맥박치
고있었다.

만수대언덕뿐 아니라 수도
와 지방의 모든 곳에서 민
족의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남녘으로 누
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
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였다.

진정 한평생 조국의 번영
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
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인민의 수령,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영생
하실것이다.

강철남

